

## 통역의 발생발전과 통역실천

정 경 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

현시기 외국어교육분야에서는 번역, 통역과 관련한 역사적인 견해와 리론들을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높은 번역능력, 통역실기능력을 지닌 능력 있는 외국어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람들의 호상래왕과 교류의 필요성으로부터 제기된 번역과 통역은 인류력사의 가장 오랜 지적활동의 한 형태로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통역의 발생발전과 통역원의 역할, 통역실천에 대한 각이한 견해들을 역사적배경속에서 분석평가하려고 한다.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사이의 입말통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성분으로서 인류의 발생발전과 함께 인간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한 언어의 본문을 다른 언어의 본문으로 옮긴 번역문의 가장 오랜 문헌자료는 B.C. 3000년경에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로 번성하였던 고대에쉴트왕국의 엘리판타이니섬에서 발견되었다. 고대에쉴트와 그리스의 접경지대와 같이 두개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던 지역에서도 통치계급의 행정적요구로부터 번역이 진행되었다는 문헌자료도 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대로마제국의 통치기반에 들어간 그리스사람들은 생활상요구로부터 라틴어를 습득하기 위한 번역련습을 진행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지고있다.

콜롬부스에 의하여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되고 유럽식민주의자들의 대륙진출이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통역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콜롬부스와 그 일행은 아메리카대륙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부터 오늘의 남부아르헨티나와 북부메히꼬사이의 광활한 령토에서 살고있던 1 000여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30여개의 원주민종족집단과 접촉하게 되었다.

원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놀게 될 통역의 중요성을 예견한 콜롬부스는 대륙예로의 항행을 준비하면서 2명의 통역원을 원정대에 포함시켰다. 이 두 사람은 아랍어와 헤브라이어, 칼디아어를 알고있는 사람들이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언어들은 아메리카대륙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콜롬부스는 이때부터 일부 원주민들에게 에스빠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통역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두번째로 아메리카대륙으로 려행할 때부터 그는 2명의 통역원을 항시적으로 참가시켰으며 1495—1518년기간에 에스빠냐인들과 원주민들사이의 의사소통은 주로 원주민출신의 통역원들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당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아메리카원주민들에게는 상대방의 언어를 리해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통역원의 개입이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통역은 주로 언어뿐 아니라 서로의 신분 다시말하여 권력과 직위, 책임에서 차이나는 두 대방사이에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신분상차이가 통역진행과정의 결정적요소로는 될 수 없었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아메리카대륙의 아즈텍왕국을 멸망시킨 에스빠냐의 식민주의자인 헤르난 코테스는 자기와 원주민들과의 면담에서 3명의 통역원이 함께 협동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에스빠냐어를 한 통역원이 마야어로 통역하여 유카테크원주민들의 언어로 넘기면 다른 한 통역원은 유카테크어를 나와죽어로 통역하여 메히꼬종족들에게 넘겼다고 한다. 여기서 흥미있는것은 에스빠냐어를 아는 메히꼬소년이 마지막통역원의 말을 듣고 헤르난 코테스가 처음에 한 발언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하곤 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관심과 원주민들에 대한 지배층의 불신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12세기에 에스빠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호상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번역의 발전을 촉진시킨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언어와 함께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두 문화의 호상접촉이었다. 이 시기에 유럽의 문화는 무어족의 문화에 비하여 열등한것으로 인식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접촉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었다.

유럽의 절대군주국가들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성서를 여러 민족어로 번역하는 사업이 군주들의 권력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스도교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번역의 역할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집단들사이의 정보공백을 메꾸어주고 의사소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뿐만아니라 종교교리를 세계각지에 전파하는 매개물로 바뀌게 되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성서가 여러 유럽언어로 광범히 번역되던 이 시기를 번역연구에서 《유럽중심론》이 도래한 시기이라고 주장하고있다. 16세기가 성서번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로 되게 한 중요한 조건은 인쇄의 출현이었다. 인쇄능력이 향상되면서 번역물의 양이 늘어나는것과 함께 번역실천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다.

아메리카대륙의 식민지화과정에 이 지역에서 통역원들은 더욱더 중요하고도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529년부터 1630년간에 에스빠냐의 카를로스 5세와 필리프 2세, 3세는 통역과 관련한 15건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1537년에 발포된 법령에서는 통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교인을 담화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에서 언급된 헤르난 코테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1563년에 통역원은 전문직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소들이 설립되면서 통역한 질문수에 따르는 월급량과 로동시간과 일수, 재판소에 해당하는 통역원수에 따르는 로동조건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통역원들은 또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원문의 내용을 덜거나 더하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통역을 보장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진행된 뉘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에서도 통역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통역은 이전 식민지시기와 같이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

라 공식회의의 성격을 떠는 격식화된 통역이었다. 나치스전범자들을 재판한 이 군사재판은 동시통역의 출현을 시험한 첫 《학교》였다.

동시통역의 방법으로 중요한 국제적성격의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70년대 초엽에 들어와서야 동시통역체계를 완전히 도입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동시통역에 의거하지 않는 국제회의는 거의나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

동시통역은 일정한 통보를 원어로 접수하고 역어로 가공전달하는 듣기와 말하기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동시통역은 일정한 통보를 역어로 가공전달하면서 그다음 통보를 즉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통보를 접수하면서 먼저 접수한 통보를 가공전달하는 즉 듣기와 말하기를 서로 다른 통보내용에 대하여 병행하여 수행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동시통역은 일정한 정보의 전달과정, 하나의 흐름선을 타고 이어지는 서로 다른 통보내용에 대한 듣기와 말하기의 병행과정, 연설자를 따라 진행하는 동시적인 과정, 원어에서 역어에로의 이행과정이 극히 축소된 신속한 번역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더 많은 통역원들을 양성해야 할 요구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통역은 고등교육기관들의 학과목으로 등장하였다.

프랑스, 도이칠란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의 여러 대학들에서는 통역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핀란드, 로씨야와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번역과 통역이 학과목으로 설정되어 학사, 석사는 물론 박사학위도 수여하고있다.

통역원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집단들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있지만 국가수반들사이의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다시말하여 중요한 정치적문제들을 다루는 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정규교육을 받은 높은 질적수준의 통역원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번역과 통역은 전문적인 번역기능을 소유한 직업적인 번역자들에 의하여 수행될수도 있고 그러한 전문기능이 없는 외국어소유자들에 의하여 수행될수도 있다. 서면번역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며 특히 회의문건과 사회정치시사물의 번역은 직업적인 번역일군들에 의하여 수행되고있다.

통역에서는 회의통역(순차통역과 동시통역)만이 직업적인 통역원들(또는 그들과 대등한 전문기능을 소유한 외국어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며 일반안내통역은 대부분 일반 외국어소유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부단한 정보처리와 순간순간의 결심채택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인 통역의 난도는 주로 말속도, 발성의 명확도, 말씨, 정보의 밀도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럽에서 번역과 통역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것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문화의 우수성을 따라배우기 시작한 B.C.300년경이었다. 고대로마인들이 번역의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것은 《단어 대 단어》번역인가 아니면 《의미 대 의미》번역인가에 대한 논쟁이 고대로마의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키케로(B.C.106-43)와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B.C.65-8)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잘 알수 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번역의 묘기는 《단어 대 단어의 표현이 아니라 의미 대 의미

의 표현》원칙에 기초하여 원어의 본문을 신중하게 해석하여 그에 알맞는 역어의 본문을 산생하는데 있다는것이다.

키케로는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나 통역을 진행한다면 결과는 투박하게 들릴것이며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원문의 단어를 변경시키거나 순서를 바꾸어 번역한다면 번역원은 자기의 역할에서 탈선한것으로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번역결과물의 정확성과 번역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번역과 통역리론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번역학자중의 한사람이었던 에띠엔 돌레(Etienne Dolet)는 1540년에 출판한 자기의 저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La maniere de Men traduire d'une langue en outre)에서 《훌륭한 번역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로, 원어의 감각과 의미에 대한 완전한 리해 둘째로, 원어와 역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 셋째로, 단어 대 단어번역을 피하기 넷째로, 피상한 언어형식을 피하기 다섯째로, 정확한 어조의 사용이었다.

통역과정에 대한 여러 문헌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통역원들이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지표들로서는 첫째로, 언어학적인 다시말하여 음운론적, 어휘론적, 문장론적, 본 문학적요소들이며 둘째로, 문화적요인들 다시말하여 해당 문화에만 특정한 미학적요소들, 룰리적영향과 같은 문화호상간의 요인들, 방법론적문제들과 시대적추세와 같은 문화내적요인들, 개인적인 실력과 태도(미학적인 태도,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태도, 정치적 및 룰리적태도, 전문가적태도)이다.

통역원의 역할에 대한 각이한 견해를 종합하여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로, 통역원을 순수 《기계적인 도구》로 보는 견해이다.

통역을 의사소통을 연결해주는 통로로만 보는 이러한 견해는 통역원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사이에 끼운 단순한 《대화도구》로 보면서 통역원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 다시말하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사이의 직선적인 의사소통에 참가하는 하나의 《마디》로 보았다.

둘째로, 대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통역원이 담화의 방향과 진행과정을 조절하면서 담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종일관 중립적인 립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간섭하여야만 하는 존재로 본다는것이다.

셋째로, 언어적차이와 함께 문화적차이를 극복하도록 협조하는 대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통역원을 단순한 《대화통로》나 《도구》로가 아니라 두 대방사이에 진행되는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동업자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통역원을 《기계적인 도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보는 이전시기의 견해를 부인하면서 의사소통에서 통역원과 대화참가자들사이의 호상작용, 담화의 성공적인 진행과 결과를 더 중시하고 강조한다.

담화참가자들이 통역원을 한갓 대화의 《도구》로 리용하여 주동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역원이 두 대방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호상작용을 진행함으로써 두 대방사이의 담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보고있다.

통역원이 두 대방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장벽을 해소시킬뿐아니라 원어와 역어에 존재하는 문화적공백을 메꾸어줄 때에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줄수 있다는 견해는 최근 번역, 통역실천과 관련한 리론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통역원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통역이 문화적차이의 영향과 제약을 받기때문에 통역원은 원어와 역어에 대한 언어적지식은 물론 깊은 문화적의식과 감각을 가져야 하며 두 언어에 내재하고있는 문화적차이를 통찰한 기초우에서 최고의 번역효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쉰잔 바스니트(Susan Bassnet)는 언어를 문화유기체의 심장에 비유하면서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의사가 인체의 다른 부분들을 무시할수 없는것처럼 번역과 통역실천에서 언어적요소와 문화적요소를 갈라놓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스니트를 비롯한 많은 번역리론가들은 번역과 통역은 두 문화사이의 교류로서 성공적인 번역은 두 언어를 잘 아는것보다 두 문화를 잘 알아야만 나올수 있으므로 언어는 문화배경속에서만 그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번역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언어에 내재하고있는 사회문화적배경을 리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언어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수 없으며 번역자가 처리하여야 할것은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두가지의 큰 문화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견해는 번역과 통역이 언어를 통한 사회적교류와 정보전달의 도구로서 하나의 전형적인 문화교류활동이며 번역과 통역 그자체는 문화호상간의 대화과정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통역원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통역원이 통역실천에서 중립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말을 보태거나 원문내용의 일부를 빠뜨리는것, 설명과 의역 등에서 원문내용을 외곡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대방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될수록 피하면서 시종일관 중립성과 공정성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것이다.

통역원의 역할에 대한 이전시기의 여러 견해들에서 긍정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은 통역원을 단순한 기계적도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면서 통역원의 역할을 비속화, 도외시하던 종전의 그릇된 견해를 부정하고 통역원을 담화의 성공적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동적이며 필수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것이다.

또한 두 대방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장벽을 해소시킬뿐아니라 원어와 역어에 존재하는 문화적공백을 메꾸어줌으로써 성공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줄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5천년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어번역과 통역리론 및 실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에 《태학》을 설치하고 박사를 두었으며 백제에서도 같은 시기 박사를 두었다. 신라에서는 682년에 《국학》을 설치하였으며 746년 국학에 박사를 두었다.

궁예의 태봉국시기에는 《사대》(여러 나라 말을 배우고 번역하는 일을 담당)라는 외국어학습 및 번역기관이 설치되었다. 995년에 고려정부에서는 10명의 소년들을 거란에 보내어 거란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1276년에는 통문관을 설치하여 관리들에게 외국어를 학습하게 하였으며 그후 통문관을 사역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때로부터 19세기 후반기까지 약 500년동안 사역원을 중심으로 한어, 몽골어, 일본어, 만주녀진어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 외교활동에 필요한 역관(번역원 및 통역원)양성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적인 번역 및 통역리론연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후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60년대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국가적인 번역기관들이 정연하게 설립되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빛나는 현실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번역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과 대외관계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일반통역은 물론 국제적성격의 대회와 각종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동시통역 연구 및 통역원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

우리의 통역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우리 당의 대외활동전사로서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빛나는 현실을 온 세계에 남김없이 선전하기 위한 통역실천에서 통역의 정확성과 생동성, 명료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통역리론과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어통역실천, 문화적 차이